



방문진, MBC 차기 사장 선임에 시민평가단 도입

최승호 사장 임기가 2월 23일 끝나는 가운데, 방송문화 진흥회(문화방송 대주주)는 차기 사장 선임 절차에 시민평가단을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사회가 서류/편집 등을 통해 3명을 뽑으면 시민평가단이 이 중 1명을 탈락시켜 2배수로 압축하고, 이사회에서 결선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새로운 사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철학,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실천 의지와 경영 능력,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발전 방안, 지역사회 및 지화사와의 전략적 발전 방안이라는 기준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YTN, '2020 보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원과의 대화' 개최



보도국장 임명 동의 투표가 두 번 연속 부결된 YTN은 보도국장 선임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의 원인을 진단하고 보도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9일 '보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원과의 대화'를 마련했다.

'경직된 조직문화', '시청률 하락', '보도 방향', '경영 성과' 등 다양한 방면으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나왔지만 서로 간의 이해나 합의점 도출 없이 5시간 내내 평행선만 그려서 '소통 부재'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tbs, 슬로건 '시민의 눈으로 한걸음 더' 결정



미디어재단 출범을 앞둔 tbs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시민공모전 통해 1위를 차지한 '시민의 눈으로 한걸음 더'로 결정

했다. 미디어재단 tbs 출범의 의미를 가장 잘 담아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다. tbs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독립성을 강화해 시민 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서울시 사업소에서 벗어나 미디어재단으로 전환 예정이다.

SBS '디지털콘텐츠 기술솔루션 T/F' 출범



지난 1월 13일, SBS에서는 디지털 뉴미디어 플랫폼 기술 부문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기술솔루션 T/F'가 출범하였다. 제작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뉴미디어 콘텐츠에 대

한 기술적 고민, 디지털 플랫폼 활용법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T/F는 SBS 기술연구소에서 야심 차게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OTT 채널 관리,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 편성 기능 등을 통해 제작부서의 디지털 채널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T/F팀은 출범 당일부터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한 미팅 요청, 기술 지원 요청 등으로 사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그만큼 제작진들의 기술적 고민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었다.

BBS, 관악산 송신소 UPS 교체 공사

BBS 불교방송은 관악산 송신소에 있는 UPS의 노후화로 지난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UPS(50KVA 병렬) 신규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다.



Wavve, 국내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0 서비스 경쟁 전략



토종 OTT, Wavve가 2020년 서비스 경쟁 전략을 발표했다. 출범식에서 2023년까지 유료 가입자 500만 명, 연매출 5,000억 규모의 서비스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Wavve는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국내 방송콘텐츠 확보와 함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투자, 해외 시리즈 수급을 강화하여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고, 또한, 콘텐츠 내용별, 타깃 이용자별로 보다 세밀하게 콘텐츠 마케팅을 강화한다. 메뉴 구조개선, 검색 기능 강화 등 UI, UX도 개선할 예정이다.

글로벌 직접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으로 K콘텐츠를 앞세워 더욱 해외 시장 공략을 진행하며,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 및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KT그룹, 2020년 신입사원 입문교육 실시



통신을 넘어 AI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KT그룹의 2020년 새내기들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이달 23일까지 3주간 진행하고 있는 '신입사원 입문교육' 커리큘럼 중 현장탐방의 한 곳으로 IPTV와 위성 방송 인프라가 구축된 목동 방송센터를 찾아 나섰다. KT그룹의 미래사업을 이해하고 Single KT로 거듭나기 위한 자긍심 및 로열티 함양을 위해 약 50여 명의 신입사원은 2개 조로 나뉘어 14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미디어 부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IPTV와 스카이라이프의 핵심 방송시설을 견학하고 시스템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EBS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방송 프로그램 재개



EBS는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 프로그램의 공식 SNS를 통해 1월 20일 방송을 재개했다. EBS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유아·어린이·청소년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EBS가 한국 언론학회와 공동 연구를 통해 전면 개정된 'EBS 제작가이드라인'은 유아·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에 관한 조항을 대폭 강화하여 출연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인권 보호, 언어, 신체접촉, 제작 현장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EBS 제작 현장 매뉴얼'을 통해 제작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 규범을 명시하였고, 'EBS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공동 심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배려심·도덕성 등을 갖춘 성인 출연자를 선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 확정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개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이 올해 5월 11일에 개최된다.

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 응모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 등은 20.1.7~2.4까지 출품서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응모 요강(붙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상은 프로그램 분야와 특별상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대상에는 시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된다.

아리랑 기술인협회 대의원회의 개최



신년을 맞아 아리랑 기술인협회 대의원회의가 지난 1월 22일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는 19년 활동내역 및 결산 보고와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 사항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입사한 신입협회원 소개와 축하의 시간을 보냈다.